

배포 일시	2022. 11. 7.(월)		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 이인원 (044-201-4603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경부일반선 무궁화호 영등포역 진입 중 궤도 이탈(3보) - 어명소 국토부 2차관, 복구현장 점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현장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복구장비가 투입되어 신속한 복구와 운행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.
- 지난 7월에 있었던 SRT 탈선사고 복구는 오전 7시에 완료된 것에 비해 이번 사고복구는 16시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,
 - 이는 이번 사고는 탈선된 칸 수가 6칸으로 지난 SRT 사고 때인 2칸에 비해 많으며, 문형 전철주로 인해 기중기로 차량을 선로에 안착시키는 작업에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.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어제 밤(23시20분) 대전 철도공사 본사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오늘 아침 영등포역 인근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복구상황을 점검하였다.
 - 어 차관은 “이번 사고와 토요일 오봉역 사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고는 안전의 기본수칙만 지키면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” 면서, “안전을 최우선하고 기본을 지키는 기업으로 환골탈태 해야한다” 고 강조하였다.
 - 또한, “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잘 지킬 것” 을 당부하면서, “열차지연 상황에 대한 안내·홍보와 부상자 사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라” 고 지시하였다.

